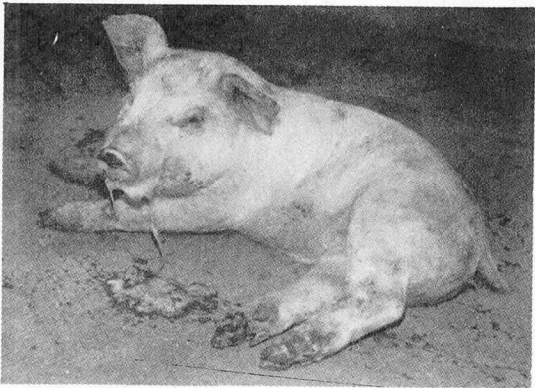


돼지 가성광견병 경남 양산에서 첫 발생

농장소유 9백54두 전부 살처분 - 7월 26일~28일



원효농원(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돼지 가성광견병에 감염된 돼지의 모습. (거품과 침을 흘리고 있다)

외래성 전염병인 돼지 가성광견병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남 양산에서 발생하여 양돈업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경남 양산군 하북면 삼감리에 위치한 원효농원에 지난 6월 초순 돼지 가성광견병이 발생,

3백여두의 돼지가 폐사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와 가축위생연구소는 경남 양산에 조사단을 긴급 파견하는 한편, 원효농원이 보유하고 있는 돼지 9백54두를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살처분·매몰했다.

농림수산부는 각 시·도에 긴급 방역대책을 마련·시달하는 한편, 전국의 양돈농가에 대해 '돈사안팎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돼지 가성광견병 백신을 절대 놓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농림수산부는 양돈농가에 쥐를 잡고 의심축은 즉시 인근 가축위생시험소나 가축위생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당부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번에 살처분한 돼지는 돼지 콜레라의 살처분 보상기준에 따라 시가의 80% 수준에서 보상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42페이지 참조>

돼지 사육두수 4백만두 돌파

사상최대두수 기록-양돈불황 불가피

그동안 우려해 오던 돼지 사육두수가 사상 최대인 4백만두를 돌파해 양돈불황이 불가피해졌다.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가축조사통계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의 돼지 사육두수는 4백2만 1천두로 지난 3월의 3백51만 6천두보다 14.3%(50만 4천두), 작년 같은 기간의 2백93만 2천두보다는 무려 37.1%(1백8만 8천두)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돼지 사육두수 추이

연도	'83년	'84	'85	'86	87. 6
총사육두수(천두)	3,649	2,958	2,853	3,347	4,021
모돈두수(천두)	609	423	433	536	613
사육두수(천호)	503	362	251	262	286
비육돈가격(천원)	83	128	159	125	126

또한 돼지 사육두수 4백2만 1천두는 현재까지의 최대두수였던 '83년 9월의 3백72만 1천두보다도 30만두나 많은 두수이다.

이와 함께 새끼돼지를 생산할 수 있는 모돈도 61만 3천두로 지난 3월의 56만 6천두보다 5.0%(3천두)나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만 4천두보다는 무려 44.7%(16만 9천두)가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편, 사육호수도 사상 최하였던 '86년 3월의 22만 6천호를 고비로 계속 증가하기 시작하여 '87년 6월에는 28만 6천호로 늘어났다. 이는 금년 3월의 26만 2천호보다 2만 4천호가 늘어난 숫자이며 작년 같은 기간의 23만 8천호보다는 무려 4만 8천호가 늘어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축산물 도매시장의 지육경락가도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하여 7월초의 2천원선에서 7월말에는 1천6백원선으로 한달 사이에 20%나 떨어졌다.

농림수산부는 예년의 돼지고기 소비증가 추세로 볼 때, 현재의 모돈 61만 3천두에서 비육돈이 생산·출하 되는 내년에는 금년 하반기 보

다 더 큰 폭으로 돼지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농림수산부는 현재 사육하고 있는 모돈중에서 불량모돈을 지체없이 감축할 것과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양돈농가에 당부하고 있다.

양돈용 배합사료 전년 동기보다 53.5% 더 생산

돼지 사육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발맞추어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량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금년 6월의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사상 최대인 24만 5천6백94톤으로 5월의 22만 9천5백89톤보다 7%, 작년 같은기간의 16만17톤에 비해서는 무려 53.5%나 늘어났다.

이와같이 배합사료 생산량이 급증하는 원인은 작년 3월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신규 양돈업자의 참여와 기존 양돈농가들이 돼지 사육두수를 급격히 늘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 돼지 사육두수가 늘어나면 배합사료 생산량은 금년중에 26만톤을 넘을 것으로 사료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농림수산부, 「'88 돼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발표

돈사 신·증축 계속 억제키로

농림수산부는 지난 7월 초순 「'88 돼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돼지가격의 장기간 호조로 그동안의 축산관측홍보 등을 통한 돼지값의 큰 폭의 하락예고에도 불구하고, 모돈이 계속 늘어나 현재의 모돈 마리수만으로도 내년도의 돼지 값은 큰 폭

의 하락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또 농림수산부는 양돈농가들이 돼지 불황예고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둔화현상을 보이던 모돈두수도 4월 이후 월 1만 5천두씩 증가하여 6월말 현재 61만 3천두에 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림수산부는 모돈두수가 59만두 수준 이내로 줄어들지 않을 경우 '88년도의 돼지 가격은 크게 폭락할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모돈을 59만두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88년의 양돈시책 방향을 ▷ 연중 가격진폭 최소화로 양돈경영안정 유도 ▷ 돼지가격 안정세 유지로 경영개선과 국제경쟁력 강화 ▷ '87년말 모돈 59만두 수준 유지로 삼고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88 돼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자료」 1만부를 제작하여 읍·면까지 배부하는 한편, 등록·허가업체의 모돈사육 감축을 계속 추진하여 돈사의 신·증축을 계속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7~8월중에 돼지 집단사육지역 또는 부락별 간담회를 시·도지사 주관하에 지역별로 2회 이상 실시하고 돼지 사육 및 전망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밖에도 돼지 출하조절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연중 7~8월과 1~3월에 양돈농가가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관련조직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축공, 돈피 가격 대폭 인상

평균 50.4%나 올라

돈피 가격이 평균 50.4%나 크게 올랐다.

축협공판장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축공에서있었던돈피 입찰에 7개 돈피 가공업체에서

응찰, 기존 거래가격보다 50.4% 오른 높은 가격에 동성피혁에 낙찰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7월 1일부터 1등급(지육 35kg 이하) 돈피는 2,500원에서 3,740원으로, 2등급(지육 36kg~53kg)은 2,760원에서 4,150원으로, 3등급(지육 54kg 이상)은 3,020원에서 4,570원으로 오른 가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최대 축산물 도매시장인 우성농역도 축공의 낙찰가격에 영향을 받아 돈피 가격을 대폭 인상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성농역도 돈피 대(大) 규격을 3,020원에서 4,570원으로, 중(中) 규격은 2,760원에서 4,150원으로, 소(小) 규격은 2,500원에서 3,740원으로 축협공판장과 동일한 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연간 10억원의 소득을 더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돈피가격이 대폭 인상된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의 돈피 가공기술의 발달로 인해 돈피를 이용한 제품 생산이 다양해지고 소비자들의 돈피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국내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중공, 대만, 홍콩 등으로 부터 연간 1억 1천만 \$ 어치의 돈피를 수입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피 가공업체에 따르면, 돈피제품은 부드러우면서도 우아해 소비자들 많이 찾고 있다며, 옷은 물론 가방, 신발, 쇼파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본회는 그동안 관계기관에 돈피의 입찰제를 꾸준히 건의하는 한편, 돈피의 수요를 개발, 양돈농가들의 실질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이번 돈피 가격 결정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아울러 본회는 양돈농가들에게 작업과정에서 돈피가 상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한편 서울시는 두당 1천3백50원하던 도축세를 7월 1일부터 1천2백50원으로 인하했다.

양돈업 등록업체 크게 증가

양돈업 등록업체가 크게 늘고 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7백34호였던 양돈업 등록농가(모돈 50~4백99두 사육농가)가 올들어 급격히 늘어나 금년 3월에는 9백32호, 5월에는 1천1호를 기록했다.

또한 이들이 사육하고 있는 모돈두수도 크게 늘어나 작년말의 6만 1천두에서 금년 3월에는 6만 8천두, 5월에는 7만 2천두로 늘어났다.

이와같이 양돈업 등록업체가 증가한 원인은 85~86년의 양돈경기의 호황에 따라 전업규모의 농장이 사육두수를 늘렸고, 또 각 시·도에서 미등록업체의 추가등록을 받아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양돈업 허가업체수는 작년에 이어 계속 35개 업체를 유지하고 있다.

표. 양돈업 등록·허가업체 현황

(단위: 호수, 천두)

구분	연도		'85		'86		'87	
	7월	12월	10월	12월	3월	5월		
업 체 수	등록	593	611	631	889	898	966	
	허가	34	35	35	35	35	33	
	계	627	646	734	932	932	1,001	
모 돈 두 수	등록	62	55	61	68	68	72	
	허가	36	31	29	27	27	26	
	계	98	86	90	95	95	98	
전체모돈대비			23.7%	20.2	18.6	16.7	16.8	16.0

대만, 양돈장 분뇨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설치비용 두당 1만 8천원 소요 추정

대만정부는 양돈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양돈장이 내년 2월까지 분뇨처리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규를 개정·공포했다.

대만정부는 양돈장의 분뇨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최소한 두당 1만 8천원(한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번 조치로 대만의 양돈업체가 분뇨처리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내용은 약 1천2백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87년 3월말 현재 대만은 6만 8천5백99호에서 7백10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전체 사육농가의 3.3%에 불과하다.

인디애나주, 제8회 국제농업대회 개최 예정

인디애나 폴리스시에서

미국 인디애나주 정부는 연례행사의 하나인 국제농업대회(International Field Days)를 오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인디애나폴리스시에서 개최한다.

매년 40여개국에서 농업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는 이 대회는 인디애나주에 있는 곡물, 낙농, 육우, 양돈, 양계 등 각 분야의 우수농장들을 방문하여 최신 농업기술의 응용현장을 견학하고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지게 되며 퍼듀대학, 종자회사, 알팔파 펠렛공장 및 개별적으로 관심있는 농업분야의 방문도 주선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농업무역관(Tel. 778-9115)이나 USFGC로 문의하면 된다.

농림수산부, 7월까지 종돈 572두 수입추천

농림수산부가 지난 3월 13일 「'87종돈 수입추천기준」을 발표한 후 7월까지 총 572두의 종돈을 수입 추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이들 종돈을 수입해 오면서 1백

표. 종돈수입추천 현황

추천번호	농장명	품종	추천량			금액	원산지
			암	수	계		
87-5-42	중원농장	L, LW	2	1	3	7,860 \$	영국
87-5-43	중원농장	L	1	1	2	5,030 \$	덴마크
87-5-44	대주산업	L, Y. D, H	16	14	30	55,400 \$	미국
87-5-45	쌍합농축	D, H	20	10	30	49,000 \$	미국
87-5-46	삼광농장	D, H	6	4	10	17,400 \$	미국
87-5-47	삼광농장	L, LW	8	4	12	27,780 \$	영국
87-5-48	둔차농장	LW	2	1	3	6,945 \$	영국
소계			55	35	90	169,415 \$	
'87년도누계			330	242	572	1,192,306 \$ 8,000,000 ₩	

19만 2천불의 달러와 8백만엔의 엔화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86년도에 986두의 종돈을 수입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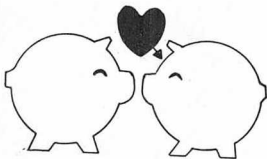
아래 표는 5월 14일 이후 7월말 사이에 농림수산부가 종돈수입을 추천해 준 내역이다.

돼지를 화목하게

돼지용 진정제


스트레스닐 주

- 스트레스닐은
1. 합사시의 싸움을 방지합니다.
 2. 수송시의 스트레스를 방지합니다.
 3. 암퇘지의 유량을 높여줍니다.
 4. 암퇘지의 수태율을 높여줍니다.
 5.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자 매 품	돼지용 최면제
	히프노딜주

제 조 원  JANSSEN PHARMACEUTICA

수입판매원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T. 582-9181~5